사하배움마당

제11호

발행 사하구 주소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전화 220-4801~6 팩스 220-4809 발행일 2018.2.20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 평생학습 구민기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희망찬 2018년을 열다

1월 1일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기위해서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았다. 해가 떠오르자 함성이 울려 퍼졌다.
구민들은 각자의 계획과 소망을 담아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 희망차보였다. 사하평생학습도 구민의 행복에 함께 하길 바란다.

글·사진 **손현아** 평생학습 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쿠키와 케이크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아빠와 함께하는 홈베이킹 인기 절정

겨울방학을 맞아 자녀와 아빠가 함께 하는 요리 프로그램이 열렸다. '아빠와 함께하는 홈베이킹' 은 쿠키와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이다. 1월 한 달 토요일마다 8시간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장소인 봄뜰 제과제빵학원(박비주 원장·52세)은 토요일마다 맛있는 빵이 구워지는 냄새로 가득했다. 처음에는 오전 강좌만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많아 오후반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엄마도 함께하면 좋겠다는 즐거운 요청도 이어질 만큼 인기가 많았다.

3회차 수업이 진행된 1월 20일은 슈빵을 만들었다. 병아리모양, 닭모양, ufo모양 등 각양각색의 빵이 만들어질 때마다 맛있는 냄새만큼이나 아빠와 자녀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생크림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더 잘되는지 질문을 하며 아이들보다 아빠가 더





즐거워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건강한 식재료에 빵을 만들기도 쉬워 수강생들의 반응은 좋았다. 이현송 어린이(승학초 3)는 "주말에는 아빠와 제가 만든 빵으로 식탁을 차려 엄마도 무척 좋아해요." 라고 말했다. 정윤 어린이(승학초 2)는 특별히 케이크 만들기가 좋았다고 한다. 이젠 직접 만든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호열(45세)씨는 미리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아이와 더 많이 대화하고 가까워져 뿌듯했다고 만족해했다.

아빠와 함께하는 홈베이킹 덕분에 주말에는 맛있고 행복한 식탁이 차려지게 될 것 같다.

최 진 평생학습 구민기자
jini3259@hanmail.net

여성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열려

제1기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 개최

3월부터 여성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열린다. '여성, 인문학에 자존감과 행복을 배우다' 를 시작으로 1기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 가 개최된다.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는 자기능력 계발과 자아성찰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리더십 있는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는 여성 리더십, 법률, 인문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시민의식 분야의 '살맛나는 동네, 인간적인 도시 만들기' 와 교양분야의 '사랑과 소통의 기술, 감정코칭' 이 눈에 띈다. 살맛나는 동네, 인간적인 도시 만들기는 도시재생의 모범이 되고 사하구만의 특색 있는 도시 설계와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사랑과 소통의 기술, 감정코칭은 자신의 감정을 알고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며 대화로써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모집은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이다. 사하구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lll.saha.go.kr)로 접속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하구 평생학습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 평생학습관 220-4117~8

김수현 평생학습 구민기자
16mmstory@hanmail.net

회차	날 짜	강좌내용	강사명
1	3/22(목) 10:00~12:00	여성, 인문학에서 자존감과 행복을 배우다	이안나
2	3/29(목) 10:00~12:00	여성리더를 위한 파워스피치	최성덕
3	4/5(목) 10:00~12:00	사법보좌관 실무중심 생활법률이야기	김성미
4	4/12(목) 10:00~12:00	시로 삶을 물들다	이민아
5	4/19(목) 10:00~12:00	도자기 공예-체험	이소영
6	4/26(목) 10:00~12:00	경쾌한 논어읽기	배병삼
7	5/3(목) 10:00~12:00	동의보감에 나타난 여성건강관리	윤현민
8	5/10(목) 10:00~12:00	재테크와 부자이야기	김명호
9	5/17(목) 10:00~12:00	나를 돋보이게하는 자수정 이미지메이킹	김진아
10	5/24(목) 10:00~12:00	살맛나는 동네, 인간적인 도시만들기	서종우
11	5/31(목) 10:00~12:00	우리집 말끔히-정리수납	김현옥
12	6/7(목) 10:00~12:00	선덕여왕, 인문학적 상상력의 리더십	김종희
13	6/14(목) 10:00~12:00	사랑과 소통의 기술, 감정코칭	유재희
14	6/21(목) 10:00~12:00	현장체험 학습	
15	6/28(목) 10:00~12:00	수료식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 보자!

사하구 평생학습관, 3월부터 자격증 과정 9개 강좌 열려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3월부터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총 22개 강좌가 개설된다.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강좌가 열린다. 특히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자격증 대비반이 많은 것이 눈에 띈다.

그 중 관심을 끄는 강좌로 '3D펜 지도자 양성과정' 이 있다 작년 까치마을 행복센터에서 열린 '건축학교 강사양성과정' 중에 포함되었던 수업을 올해는 3D펜 지도자 자격증반으로 개설한 것이다. 작년에 이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들은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도 만들어 지역행사에 참여하며 재능기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외에도 드론 면허 국가자격증 대비반, 직업상담사 2급 실기자격증 대비반, 세계 시민교육강사 과정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반이 개설되어 있어 일자리를 원하는 주민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신청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규학습자는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우선 접수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평생학습관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도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배움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란다.

문의 : 평생학습관 220-4117~8

안옥순 평생학습구민기자
an5035@hanmail.net

사하구 평생학습관 상반기 프로그램 안내

연번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모집인원	운영기간	요일	시 간	비 고
1	종이접기 지도사 (종이접기 2급 자격과정)	사하구민	20명	3. 5. ~ 6. 18. (15회, 30시간)	월	10:00~12:00	재료비 6만원 (교재비 포함)
2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국가자격증 대비반	사하구민	30명	3. 5. ~ 4. 9. (16회, 24시간)	월,화,금	10:00~13:00	교재비외 4만원
3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대비반	사하구민	20명	3. 7. ~ 5. 24. (24회, 72시간)	수,목	10:00~13:00	재료비 19만원
4	헤어미용사 국가자격증 대비반	사하구민	20명	3. 7.~ 5. 30. (25회, 75시간)	수,금	10:00~13:00	재료비 20만원
5	3D펜 지도사 양성과정	사하구민	30명	3. 14.~ 5. 30. (12회, 24시간)	수	10:00~12:00	재료비 3만6천원
6	디자인 붓글씨 펀터치 캘리그라피 자격과정	사하구민	20명	3. 8. ~ 6. 14. (15회, 30시간)	목	14:00~16:00	재료비 4만원
7	드론 면허 국가자격증 대비반	사하구민	30명	3. 8. ~ 5. 10. (10회, 20시간)	목	19:00~21:00	교재비 1만원
8	1인 창업, 나도 인터넷 쇼핑몰 사장	사하구민	30명	3. 7. ~ 4. 12. (12회, 24시간)	수,목	19:00~21:00	사하구청 정보화교육장
9	부산현대미술관 미리보기 비엔날레 도슨트 도전기	사하구민	30명	3. 5. ~ 5. 14. (9회, 18시간)	월	14:00~16:00	–
10	성공을 위한 파워스피치 2급 자격증 과정	사하구민	50명	3. 6.~ 5. 29. (12회, 24시간)	화	14:00~16:00	교재비 2만원 (응시료 별도)
11	세계시민교육 강사과정 (세계시민교육전문가2급)	사하구민	50명	3. 6. ~ 5. 29. (12회, 36시간)	화	10:00~13:00	교재비 2만원
12	시니어 뮤직가튼 전통민요 시니어인지 음악활동	사하구민	30명	4. 16. ~ 6. 11. (8회, 16시간)	월	10:00~12:00	–
13	구민기자 양성과정	사하구민	30명	3. 15.~5. 31. (12회, 24시간)	목	14:30~16:30	
14	위기탈출 넘버원! 응급·재난상황 대처법 바로알기	사하구민	30명	4. 13. ~ 4. 27. (3회, 6시간)	금	10:00~12:00	
15	영화로 보는 재미있는 4차 산업	사하구민	50명	3. 12. ~ 6. 4. (12회, 24시간)	월	10:00~12:00	–
16	삶을 기록하는 시인학교	사하구민	30명	3. 6. ~ 5. 29. (12회, 24시간)	화	10:00~12:00	교재비 3만원
17	붓펜으로 그리는 마음의 지혜 명심보감	사하구민	30명	3. 7.~ 5. 23. (12회, 24시간)	수	14:30~16:30	교재비 5천원
18	부동산 경공매	사하구민	50명	3. 7. ~ 5. 9. (10회, 20시간)	수	19:00~21:00	교재비 2만원
19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	사하구민	40명	3.22. ~ 6. 28. (15회, 30시간)	목	10:00~12:00	2. 26.부터 모집
20	E.H. 곰브리치 , 서양미술사를 말하다	사하구민	30명	3. 8. ~ 5. 31. (12회, 18시간)	목	19:30~21:00	교재비 3만원
21	나만의 인테리어 액자 색연필 보테니컬 아트	사하구민	20명	3. 6. ~ 5. 29. (12회, 18시간)	화	13:30~15:00	교재비 1만 7천원 (준비물 별도)
22	흙 만지는 생활도자기	사하구민	20명	3. 8. ~ 5. 10. (10회, 20시간)	목	10:00~12:00	재료비 7만원

온라인 평생학습 배움의 기회 넓히다

검정고시 비롯 4개 유형 운영

사하구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평생학습에는 검정고시, 독학학위제 교육과정, 국가공인 자격 교육과정, 국가등록 민간자격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lll.saha.go.kr)에서 교육정보 – 온라인강좌로 신청 후 상담 전화로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 평생학습은 IMBC캠퍼스, 주식회사 트리시스, 한국지식교육협의회와 협약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하구민이라면 ▲검정고시, 독학학위제 교육과정은 50%(사회 취약계층은 100%), ▲국가공인 자격 교육과정은 70%, ▲국가등록민간자격 교육과정은 10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공인자격증 과정은 사회복지사 2급, 건강가정사, 보육교사2급이다.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과정은 심리상담사1급, 분노조절상담지도사 1급, 캘리그라피지도사, 방과후지도사 1급 등 41개 과정이 운영 중이다.

초·중·고등 검정고시, 대학 졸업 독학학위제 교육과정은 상시 모집한다. 국가공인·국가등록민간자격 교육과정은 1, 2학기 나눠 진행한다.

사하구는 더 많은 구민들이 학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학습관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은 적극 이용해 볼 만하다.

문의 : 평생학습관 220-4117~8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하단꿈길작은도서관을 다녀와서

"책도 보고 장난감도 빌릴수 있어 좋아요~"

하단1동 동매산 기슭에는 아담하고 예쁜 3층 건물이 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하단꿈길작은도서관이다. 산복도로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멀리 가지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생겨 부담없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단꿈길작은도서관 이름은 하단포구의 '포구꿈길' 벽화거리에서 따온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공모로 선정되었다. 도서관 외관은 책꽂이 모양을 본 떠 만들었다고 한다.

1층에 있는 공동 육아나눔터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으로 장난감을 만져보고 시연도 하며 대여도 가능하다. 장난감 대여는 연회비 만 오천원이며 2주일에 한번씩 2개까지 대여 할 수 있다. 장난감이 너무 비싼 요즘 엄마와 아이가 함께 와서 다양한 장난감을 빌려 갈 수 있으니 좋다.

나무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유·아동 열람실이 있고 3층은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열람실이다. 이 곳은 청소년 대상 책을 따로 분류하여 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도 좋은 도서관이다. 개관 한 지 아직 일 년이 되지 않아 장서수가 5천여권으로 많지는 않지만 매달 책이 들어와 비워진 서고가 점점 채워지고 있다. 하루 평균이용객 수는 50여명이고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100여명도 이용한다. 주말에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다.

지난 1월에는 겨울방학 특강으로 초등 한국사, 유아 초등 과학놀이, 초등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열었다. 덕분에 도서관 인근의 어린이들이 방학기간 동안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다. 3월부터는 북적북적 동화세상 등 유아, 초등저학년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난감 도서관도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목요일, 엄마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오감으로 자극을 주는 '뮤직팡팡' 프로그램을 연다. 3세 유아 대상으로 해당 연령 부모들은 관심을 가져 보면 좋겠다.

하단꿈길작은도서관은 자연친화적인 재료인 나무로 계단을 만들고 노랑, 연두의 밝은 색상으로 꾸며져 있어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 준다. 조용하고 장난감도 빌릴 수 있는 하단꿈길작은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

문의 : 장난감도서관 205-4583
작은도서관 203-7798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아름다운 그대

사하구가 자랑하는 평생학습 강사

김현순 자연학교 강사를 만나다



김현순(60세·다대동) 씨는 2017년 사하구 평생학습 활성화 유공자로 표창을 받았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당연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녀가 새로 쓰는 인생은 사하구의 평생학습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딸들이 졸업하여 외지로 나가고 난 후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했다고 한다. 그때 만난 곳이 막 생긴 사하구 평생학습관이었다.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딴 민간자격증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

그녀는 무엇보다 자연학교 강사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생물학 전공과 맞고 자연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학교 생태 해설사 과정이 재미있었다. 재미있어서 시작한 일이 계기가 되어 부산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해양생태 해설사 등 생태 전문가가 되었다.

쉽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서류심사에 통과하고 8.9 대 1의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면접을 볼 때 두렵고 떨려서 그만둘 생각을 했다. 그때 두 딸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 두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지금 두 딸은 끝없이 도전하고 발전해가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녀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오면서 몇 가지 잊지 못할 일들이 있다. 일찍 결혼하여 교사 자격증이 있었으나 교사의 꿈을 포기했던 그녀에게 자연학교에 참석한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던 일이다. 문해교육사 자격증이 있어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며 시간을 소일하던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진작 알았으면 화투친다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라고 말하던 할머니가 있었다. 수업 중에 사위에게 전화가 오자 공부시간 방해하지 말라고 호통 치던 모습도 우습기도 했지만 감동적인 기억이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자연학교 수업을 진행했을 때 그들이 "학창시절에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많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평가에 강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김현순 자연학교 강사는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이다.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강의 방법과 자료를 서슴없이 전해준다. 동기부여를 해주고 함께 나아가는데 적극적이다. 이런 그녀의 노력이 있어 승학산과 몰운대의 자연학교는 새롭게 발전을 거듭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녀는 역사 해설사 과정도 마쳤다. 사하구의 구석구석을 훑으며 사하의 자연과 역사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사하구에서 자랑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유공자임이 분명하다.

이미성 평생학습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생활에 도움 주는 성인문해교실

한글교실 반도 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도 만들고

사하구가 직접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실이 있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자음모음 한글놀이교실' 과 까치마을 행복센터에서 진행되는 '몽당연필 한글교실' 이다.

자음모음 한글놀이교실은 개강할 당시 수강생이 4명 정도로 한 반만 있었다. 입소문이 나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지금은 한음반과 오성반으로 나눠 수업한다. 각반 인원이 30명이 넘을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수업은 월·수·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진행된다. 사하구에 사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

한글교실은 한글 자음모음 순서를 익히고 자신의 이름쓰기부터 시작한다. 숫자쓰기와 셈하기도 배운다. 교재 '소망의 나무' 1, 2, 3권을 통해 낱말을 익히고 따라 쓰기와 받아쓰기도 꾸준히 하고 있다. 올해는 시화전 준비와 성인문해골든벨에 도전할 예정이다. 김사순(76세·당리동) 어르신은 "공부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는데 여기서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아요. 가족여행도 취소하고 배우러 옵니다." 라고 수줍게 웃으셨다. 한음반 어르신들은 계속 배워서 검정고시도 치고 중등과정으로 넘어가고 싶다고 하신다.



황정옥 문해교사는 "어르신들이 실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낱말을 직접 쓸 수 있다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모두 건강하게 계속 수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람을 말했다. 초등문해교육과 더불어 교통안전문해, 금융문해교육 등 생활문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안전문해는 교통사고 예방 안전보행하기, 교통안전 표지판 익히기, 버스·지하철 안전하게 이용하기가 있다. 금융문해교육에는 은행 창구 이용하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하기, 공과금 납부하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 있다.

성인문해교실은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도 함께 배울수 있어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예전보다 한 개반이 더 늘어났지만 대기 중인 분들도 많다고 한다. 사하구는 올 2월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문해자들의 교육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사하구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분들을 위해 성인문해교육을 더 확대하여 그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활력을 줄 수 있기를 바래본다.

문의 : 평생학습과 220-4805

강경화 평생학습 구민기자
wy0823@naver.com

동아리톡톡

공간을 바꾸는 마술사

정리정돈수납 동아리 '말끄미' 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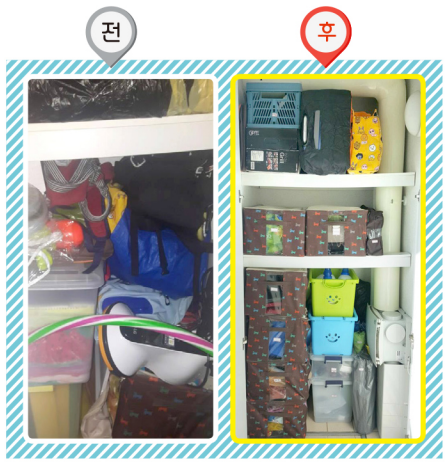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집주인에게 질문이 쏟아진다. 버리는 것, 보류하는 것, 보관하는 것에 맞춰 말끄미 동아리 회원들의 손이 분주하다. 어지럽던 베란다 수납장이 겨우 한 시간만에 깔끔해졌다. 말끄미 동아리 첫 정기모임이 1월 마지막 날 동아리 회원의 집에서 열렸다.

'말끄미 동아리' 는 2016년 10월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정리수납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고 만들어진 동아리이다. 비움과 채움을 실천하고 배운 것을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현재 이혜진 회장외 13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기모임은 월 1회 하고 있다. 회원들의 집을 돌며 정리정돈으로 실습한다. 실습을 하며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고 더 좋은 방법과 기술을 공유하며 회의를 한다.

결성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다복동사업과 연계하여 복지과에서 선정된 가정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재능기부 수업과 체험부스 운영도 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어지럽고 무기력한 가정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단순 정리정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과 사후관리를 통해 스스로 생활습관이 개선되도록 도와준다.

소외된 독거노인을 방문해 정리수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서랍장과 바구니 등 정리에 필요한 물품도 증정했다고 한다. 평생학습관과 경로당 등에서 재능기부 정리수납 교육도 했다. 평생학습 성과공유회에서는 체험부스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직접 수건이나 양말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양말도 제공하였다. 회원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의 집을 방문했을 때 탐탁지 않아 하던 여성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 동아리회원들은 사하구 정신보건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어려운 이웃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말끄미 동아리



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올해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인 '고우니의 러브 하우스' 사업에 도전한다. 생계활동에 지쳐 집안 살림이나 정리정돈에 취약한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인 교육과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사하구의 보석같은 동아리임에 틀림없다.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10팀에 총 900만원 지원

사하구는 주민의 자발적인 평생학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수 평생학습동아리를 지원한다.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현재 활동 중인 동아리로 최소 7인 이상의 사하구민으로 구성되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응모한 동아리들의 활동내용을 평가하여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10개팀을 선정하여 900만원을 지원한다. 최우수 1팀에게는 120만원이, 우수 3팀에게는 각 100만원, 장려 6팀에게는 각 8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해마다 진행하는 이 사업은 주민주도의 평생학습을 하는 사하구 평생학습동아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작년에는 동아리 리센을 비롯하여 10개의 우수 평생학습동아리가 선정되었다. 신청접수는 3월 중에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하구 평생학습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평생학습관 220-4117~8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학교와 마을이 만나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사하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 본격 추진

사하구는 공교육혁신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인 다행복교육지구를 통해 학교교육에 함께 나선다. 다행복교육지구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자치구가 협약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학생들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하구는 지난 1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2018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사하다행복교육지구는 '학교와 마을이 만나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사하' 라는 비전으로 △배움을 즐기고 꿈을 펼치는 창의적 인재 육성 △소통·나눔·참여의 사하 다행복교육지구 조성 △학교, 마을, 사하구가 함께 하는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정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다.',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학교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4차 산업을 대비한 교육과 체험을 지원한다.' 는 3가지 원칙과 함께 지역 특성을 감안한 21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 중 학교교육과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 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마을교사·마을활동가 양성이 있다. 양성과정 수료와 인증제를 통해 질높은 마을교사·활동가를 양성하여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교과서가 살아있다' 와 다대포에서 즐기는 '해양 레포츠 교실' 을 운영할 계획이다. 생존수영, 카약 등 여러 해양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동아리를 지원하고 구청장배 스포츠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안전과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학교 체험 활동 시 버스도 지원한다.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해 다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서부교육지원청과 사하구 전담팀이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8년 1월부터 2년간 운영되며, 이후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더 연장 가능하다. 사하구와 서부교육지원청은 사업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 사업설명회도 열었다. 학부모, 교사 등 200여명이 참여하였다. 학부모 강영화(48세·당리동)씨는 "다행복교육사업으로 가고 싶은 학교와 살고 싶은 동네가 되면 좋겠어요.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힘을 보태고 싶어요" 라며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 사업으로 사하구가 모든 아이들이 배움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다행복한 지역 교육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